2009.07.06 연합뉴스
보츠와나, AU 영장집행 거부에 반발

아프리카연합(AU)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의한 가운데 보츠와나가 이번 AU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고 나섰다.

판두 스켈레마니 보츠와나 외무장관은 6일 성명을 통해 "보츠와나 정부는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로마정관 가입국으로서 수단 대통령을 체포해 ICC로 넘기는데 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확약한다"고 밝혔다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사 사파(SAPA)가 보도했다.

앞서 아프리카 53개국의 협의체인 AU는 지난 3일 리비아의 시르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ICC가 지난 3월 초 바시르 대통령을 전범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AU 회원국은 바시르 대통령의 체포 및 인도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스켈레마니 장관은 이번 결의문 채택이 반대 의견을 지닌 회원국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비난하면서 대량학살과 반인도.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송상현 ICC 소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바시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달 초 탄자니아, 레소토에 이어 보츠와나를 방문해 이안 카마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권정상 특파원)

2009.07.16 파이낸셜뉴스
[대학 포커스] 현병철 한양사이버대학 학장

현병철 한양사이버대학 학장은 "한양사이버대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 사이버대"라고 강조했다.

현 학장은 "개교 7년 만에 재학생 12배 성장이라는 기록적인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며 "전문가와 학생이 동시에 만족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84년 한양대 법대 교수를 시작으로 1993년 한양대 법대학장, 1997년 한양대 안산캠퍼스 학생처장, 1999년 안산캠퍼스 사무처장을 역임한 현 학장은 2002년 한양대 총무처장, 2005년 한양대 행정대학원장을 거쳐 2006년부터 한양사이버대를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5개 학과 950명으로 개교한 이후 올해 학부 14개 학과 재학생 1만2100명으로 성장한 한양사이버대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현 학장은 한양사이버대만의 특징으로 획일화된 사이버 강의에서 벗어난 다양한 콘텐츠와 사학 명문 한양대의 교육 노하우 접목을 꼽았다.

현 학장은 "국내 최초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코넬대 교수진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명사를 초빙해 옴니버스 식으로 엮은 명사 특강도 진행 중"이라며 "딱딱한 이론 강의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강의는 특별한 실무경험이나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양사이버대 명사 특강은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를 교수로 초빙,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 강의자료로 제공한다. '미래사회와 창의적 인재'라는 과목명으로 운영되는 이 강좌는 인재의 자세, 역할 및 비전을 제시하도록 옴니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어령 전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송상현 교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참여한 바 있다.

현 학장은 "올해부터 한양사이버대가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대외적 환경이 한양사이버대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며 "이제는 사이버대뿐만 아니라 일반대학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전 구성원들의 노력을 담아 오는 2020년에는 세계 최고 원격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사이버대는 지난해 중장기 발전전략인 'HYCU VISION 2020+'를 수립했으며 2020년에 교수 1인당 논문 수가 현재의 0.52편에서 2편으로, 재학생은 2만명으로, 외국어 콘텐츠 비율은 1%에서 10%로, 연구 수주는 23건에서 440건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 8개 단과대학 24개 학과를 둔 종합대학으로서 미국, 유럽, 중국 등 5개 지역에 세계지역센터 설립, 해외대학 협력 강화 등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현 학장은 전했다.

현 학장은 "미래는 지식과 정보를 축적, 분석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나가는 인력이 요구되는 사회"라며 "첨단 분야와 복합학문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한양사이버대가 정보화·디지털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주 기자)

2009.07.20 YTN

대법원, 김용담 대법관 후임 선정 착수

대법원은 오는 9월 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김영란 대법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법조경력 15년이 넘는 40살 이상 법조인 가운데 대법관으로 제청할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이후 제청자문위가 추천된 인물 가운데 2~4명을 고르면 대법원장이 그 중 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제청해 내정자가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2009.07.21 아시아투데이

김용담 대법관 후임 선정에 하마평 무성

오는 9월 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선정이 착수된 가운데 재야 법조계에서 새로운 인물이 거론되는 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대법원은 송상현 위원장(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등 9명을 대법관 제청자문위원으로 선임하고,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에 대한 추천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안팎에 따르면 신임 대법관으로 9~10기 현직 법원장들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용균(연수원 9기) 서울행정법원장과 강병섭(2기)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9기 중에는 김 법원장 외에도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올해 초 자문위원회가 추천했던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과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10기에서는 길기봉 대전지법원장, 김대휘 춘천지법원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이상훈 인천지법원장, 이재홍 수원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재야 법조계에서 새로운 인물을 대법관에 임명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서울변회가 추천할 예정인 강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름이 거론돼 왔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는 40세 이상의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에 한하며, 추천을 희망하는 단체 등은 주어진 기간 내 추천서를 접수하면 된다.

제청자문위가 내달 10일쯤 회의를 열어 추천된 인물 가운데 2-4명을 고르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제청된 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되며 지금까지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김숙현 기자)

2009.07.22 세계일보

9월 대법관 임명, 사상·도덕성 '유리알 검증' 예고

대법원이 오는 9월 물러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 인선에 나서면서 벌써부터 하마평이 나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라는 점에서 진보·보수 양측 대립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 낙마에서 보듯 재산과 도덕성을 둘러싼 검증은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전날 구성,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5일간 각계로부터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은 뒤 다음달 10일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적격자 3~4명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초 신 대법관과 경합한 구욱서 대전고법원장 등 사법연수원 8기 법관은 다시 추천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수원 10~12기에선 이미 대법관이 배출됐다.

대법원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고등법원장급에서 대법관이 나온 적이 없다"며 "이번엔 아직껏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한 9기에 기회가 주어질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연수원 9기에선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이름이 오르내린다. 판사 생활 대부분을 호남 지역에서 한 정갑주 전주지법원장도 '향토법관' 배려 차원에서 발탁을 점치는 이가 있다.

10기까지 내려가면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력하다. 전국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흔히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가는 '지름길'로 여겨진다. 길기봉 대전지법원장, 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이상훈 인천지법원장, 이재홍 수원지법원장, 조용호 춘천지법원장 등도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이미 연수원 9기의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과 2기의 강병섭(60)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상태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김영란 대법관 임명 등 청와대·대법원의 '서열파괴'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낸 강 변호사는 새 대법관이 외부 인사 중에서 기용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다.

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적 단체들은 새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들은 "신 대법관 파문으로 큰 상처를 입은 사법부의 혁신을 위해 참신하고 개혁적인 재야 법조인이 대법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높아진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으려면 재산 형성 과정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한 법원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와 마찬가지로 청렴성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부상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태훈 기자)

2009.07.23 연합뉴스
서울변회, 김용균·박병대·강병섭 대법관 추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23일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55.사법시험 19회), 박병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52.21회), 강병섭 변호사(60.12회)를 대법관 후보로 상급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국 변호사 70%가 속한 서울변회는 지난 14일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김 원장과 강 변호사 2명을 우선 추천 대상으로 선정한 뒤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박 수석부장을 추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사시 22회인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되는 등 검찰 수뇌부가 젊어지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대법원에도 상대적으로 젊은 기수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서울변회 등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취합한 뒤 28일 사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5명 안팎의 대법관 후보를 최종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한 제청자문위를 구성했고, 24일부터 30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차대운 기자)

2009.07.23 노컷뉴스
서울변회, 김용균 박병대 강병섭 대법관 후보 추천
28일까지 5명 안팎 후보 선정, 최종 추천 예정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퇴임을 두 달여 앞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55·사시19회)과 박병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52·사시21회), 강병섭 변호사(60·사시12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각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뒤, 오는 28일 5명 안팎의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최종 추천할 예정이다.

전국 변호사의 70% 이상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만큼, 서울변회가 추천한 김 법원장 등 세 명은 모두 대법관제청자문위의 대법관 후보군에 속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관제청자문위(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는다. (심훈 기자)

2009.07.23 파이낸셜뉴스
서울변회, 김용균·박병대·강병섭 대법관 후보로 추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 박병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강병섭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14일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김용균 원장, 강병섭 변호사를 추천대상자로 선정한데 이어 상임이사회에서 박병대 수석부장을 후보군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오는 28일 사법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방변호사회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5명 안팎의 후보자를 선정한 뒤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최종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관제청자문위(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김용담 대법관이 오는 9월로 임기가 끝남에 따라 24일부터 30일까지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관 추천 후보군으로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수원지법원장, 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 이상훈 인천지법원장, 길기봉 대전지법원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등이 꼽히고 있다. (조용철 기자)

2009.07.24 서울신문
김용담 대법관 퇴임 임박… 후임 하마평 무성
인사검증 쉬운 현직법관 발탁 가능성

퇴임을 한 달 보름 정도 앞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서초동이 또다시 하마평으로 술렁이고 있다.

당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법원 내부 인물이 중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사태 등을 계기로 인사검증이 수월한 현직 법관이 발탁될 가능성도 높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24일부터 5일 동안 각계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은 뒤 다음달 10일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적격자 3~4명을 제시할 계획이다.

법원 내부 인사가 추천된다면 연수원 9~10기에서 대법관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초 신 대법관과 경합을 벌인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8기 중에는 이미 신 대법관과 전수안 대법관이 있기 때문에 또 추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력한 후보는 9기 법원장인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 등이다. 10기로 내려가면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상훈 인천지법원장, 이재홍 수원지법원장, 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등이 후보로 꼽힌다.

법원 외부에서는 지난번 대법관 인선과정에서 제청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던 강병섭(2기) 변호사가 유력하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연령상 대법관 정년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오곤(9기) 전 대구고법 부장판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유지혜 오이석 기자)

2009.07.27 법률신문
“대법관후보 30일까지 추천” 공고
대법원, ‘제청자문위’ 구성

대법원이 오는 9월11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적격여부를 자문하는 대법관제청자문위를 구성하고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송상현(67) 국제형사재판소(ICC)소장이 위촉됐으며, 법관 가운데에는 김영란(53) 선임대법관, 박일환(58) 법원행정처장, 박효관(48)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김경한(65) 법무부장관, 김평우(64) 대한변협회장, 성낙인(58)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법조유관직역 대표 3명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외부인사로는 송 위원장과 서정돈(65) 성균관대 총장과 김재옥(63)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20일 대법원 홈페이지(www. scourt.go.kr)를 통해 대법관후보 추천공고를 하고, 7월24~30일 법원 안팎으로부터 대법관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8월10일께 제청자문회의를 열고 추천된 인물들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이어 이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자문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가운데 한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할 예정이다. (류인하 기자)

2009.07.30 파이낸셜뉴스
김용담 대법관 후임 추천 30일 마감..40여명 추천된 듯

오는 9월 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 대법관 선정을 위한 후보 추천이 30일 마감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후보 추천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명망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40여명 정도가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중에는 구욱서 대전고법원장,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수원지법원장, 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 이상훈 인천지법원장,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장, 박홍우 전 세계한인변호사회장, 강병섭 변호사, 박병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내달 초 회의를 열어 이 중 2~4명의 후보로 압축하면 이 대법원장이 1명을 선택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제청자문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김경한 법무부장관, 김영란 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등 8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조용철 기자)

2009.07.30 YTN

대법관 추천 마감...40여 명 추천

9월 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 안팎의 명망있는 법조인 40여 명이 추천됐습니다.

대법원 제청자문위는 다음달 10일쯤 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를 2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여기서 한 명을 골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제청자문위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위원장으로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김영란 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등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9.07.30 머니투데이

대법관 후보 추천 마감‥40여명 추천

9월11일자로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법조인 40여명이 추천됐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후보 추천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법원 안팎의 명망있는 법조인들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관재(56·연수원 7기) 광주고법원장과 구욱서(54·8기) 대전고법원장 등 고법원장, 이인재(55·9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유원규(57·9기) 서울가정법원장, 김용균(55·9기) 서울행정법원장, 정갑주(55·9기) 전주지법원장 등이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 '바른'의 강병섭(60·연수원 2기) 변호사와 박홍우(57·4기) 전 세계한인변호사회장,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박병대(52·12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등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김용균 행정법원장과 문홍수(52·11기)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 등 2명을 추천했다.

대법원 제청자문위는 다음달 10일께 회의를 열어 이 가운데 2~4명을 압축할 방침이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제청자문위가 압축한 후보 중 1명을 골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한편 제청자문위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위원장으로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김영란 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류철호 기자)

2009.07.31 서울신문

[31일 TV 하이라이트]

●YTN초대석(YTN 낮 12시35분) 글로벌 시대라고 하기엔 우리나라 무역규모나 경제볼륨으로 볼 때 그동안 국제기구 분야의 진출은 다소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았던 게 사실이였다. 인류범죄와 전범을 단죄하는 세계 유일의 영구적 형사법원인 국제 형사 재판소 송상현 소장에게 헤이그에서의 일과와 국제기구의 영향력, 정부 역할 등에 대해 들어본다.

2009.08.04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대법관 후보 2~3명 10일 선정

대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 서초동 대법원청사 6층 회의실에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열고 김용담 대법관 후임 후보자 2~3명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중 1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경한 법무부장관, 김영란 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등 8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조용철 기자)

2009.08.04 노컷뉴스

대법관 후임자 오는 10일 선정 40명 후보 중 2~4명 압축 예정

대법원은 오는 10일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를 열어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자를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달 말까지 신임대법관 후보자를 천거받은 40명에 대해 능력과 경륜 등을 검토한 뒤 2-4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후보자 중 1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며, 제청된 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한편, 대법원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제청자문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김영란 대법관등 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완복 기자)

2009.08.04 아시아투데이

김용담 대법관 후임 후보군 10일 선정

대법원은 오는 10일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30분 6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청자문위에서는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40여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해 대법관직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경륜 등을 검토해 2~4명을 압축하게 된다.

이후 이용훈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그 가운데 한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제청된 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제청자문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김영란 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등 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숙현 기자)

2009.08.05 법률신문

새 대법관후보에 법원장 등 40여명 추천

대한변협은 권오곤씨 등 3명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후보로 40여명이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추천을 받은 결과, 법원내부 인사로는 7기의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8기의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이기중 부산고법원장, 9기의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정갑주 전주지법원장, 10기의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이재홍 수원지법원장·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이상훈 인천지법원장 등 주로 사법연수원 7~10기 사이의 법원장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신임 대법관후보로 권오곤 옛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56·사법연수원 9기)과 박홍우 전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회장(57·연수원 4기), 강병섭 변호사(60·연수원 2기) 등 3명을 대법원에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28일 이사회를 개최,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법원을 혁신할 적임자로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깊은 이들 3명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국인 판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제재판소 고위직에 오른 권오곤 재판관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강병섭 변호사(60・연수원 2기)와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55・연수원 9기)과 박병대(52·연수원12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를 추천후보로 확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명단을 제출했었다.

이외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정주교)은 강 변호사와 함께 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으나, 민변은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노조는 김 행정법원장과 문흥수(52·연수원11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오는 10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6층 회의실에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를 열어 2~4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 중 한 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 대통령은 국회동의절차를 거쳐 신임 대법관에 임명하게 된다. (권용태 기자)

2009.8.5 서울경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이화여대 '현대판 신사유람단' EGI 유럽탐사

국제기구·글로벌기업 견학 "해외 진로 모색에 큰 도움"

지난 6월28일 이화여대 재학생 36명이 인천공항을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했다. 이들은 2주일 동안 네덜란드・벨기에・독일・스위스・프랑스・이탈리아 등 6개국을 방문해 국제형사재판소(ICC)・유럽연합(EU)・세계보건기구(WHO)・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견학했다. '갈등과 통합'을 주제로 한 이번 해외탐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화여대는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키워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화 글로벌 이니셔티브(Ewha Global Initiative・EGI) 유럽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개화기인 1881년 4월10일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 30~40대가 주축이 된 '신사유람단'을 본떠 만든 제도다.

13박14일 일정으로 유럽 주요국을 돌면서 국제기구와 대학, 글로벌 기업을 방문하는 EGI 해외탐사의 핵심은 국제기구 본부 방문이다. 특히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인들과의 만남은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탐사에서 학생들은 송상현 ICC 소장과 만

남을 가졌다.

오혜성(영어영문4)씨는 “(송 소장을) 잠깐 만났지만 대단한 포스가 느껴졌다”면서 “송 소장은 법률지식뿐 아니라 영어 실력이 매우 뛰어나 발탁됐다고 하는데, 국제기구의 고위직 진출도 준비가 돼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WHO를 방문했을 때는 고 이종욱 전 사무총장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민희(사회4)씨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한국에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김수진(경영3)씨는 “많은 한국인들이 국제기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많은 자극이 됐다”고 말했다. 송미나(컴퓨터정보통신4)씨도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국제기구 방문을 통해 우리를 객관화시키고 보다 넓은 시각을 갖추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 3~4학년생이다 보니 이번 해외탐사가 진로를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특히 학생들은 글로벌 현장을 다니면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외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송미나씨는 “졸업까지 한 학기밖에 남아 있지 않아 신청할 때 고민이 많았는데 다녀와 보니 투자한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했고, 김수진씨는 “이번 탐사를 통해 세계를 보는 눈이 확실히 넓어진 것 같다. 미래에 대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우민희씨와 오혜성씨는 리더십과 거시적인 안목을 키우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김교령씨는 “유럽인들이 서로를 포용하는 것이 부러웠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통합의 과정이 있었는지 눈으로 보면서 마냥 부러워만 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탐사 소감을 밝혔다. (성행경 기자)

2009.08.08 뉴시스

새 대법관에 40여명 추천…유력후보 10일 윤곽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40여명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후보는 10일 열리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 받은 결과, 법원내부 인사로는 7기의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8기의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이기중 부산고법원장, 9기의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정갑주 전주지법원장, 10기의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이재홍 수원지법원장·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이상훈 인천지법원장 등 주로 사법연수원 7~10기 사이의 법원장급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신임 대법관후보로 권오곤 옛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56·사법연수원 9기)과 박홍우 전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회장(57·연수원 4기), 강병섭 변호사(60·연수원 2기) 등 3명을 대법원에 추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도 강병섭 변호사(60·연수원 2기)와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55·연수원 9기)과 박병대(52·연수원12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를 추천후보로 확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정주교)은 강 변호사와 함께 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으나, 민변은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노조는 김 행정법원장과 문

홍수(52·연수원11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는 10일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압축,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 중 한 명을 골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 대통령은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신임 대법관에 임명하게 된다. (김종민 기자)

2009.08.10 뉴시스

접견실 들어서는 이용훈 대법원장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가운데)이 김경한 법무부장관(오른쪽), 송상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대법관제청자문위원들과 면담을 갖기 위해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세연 기자)

2009.08.10 뉴시스

제청위원들과 접견 마치고 나오는 이용훈 대법원장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오른쪽)이 회의 전 찾아온 송상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등 자문위원들과 면담을 마친 후 접견실에서 나오고 있다. (박세연 기자)

2009.08.10 뉴시스

대법관제청자문위원들과 면담 마친 이용훈 대법원장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오른쪽)이 회의 전 송상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을 비롯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들과 면담을 마친 후 접견실에서 나오고 있다. (박세연 기자)

2009.08.10 뉴시스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들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가운데)이 김경한 법무부장관(오른쪽), 송상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등 대법관제청자문위원들과 면담을 갖기위해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세연 기자)

2009.08.10 뉴시스

이야기 나누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송상현 위원장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오른쪽)이 송상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등 대법관제청자문위원들과 면담을 마친 후 접견실에서 나오고 있다. (박세연 기자)

2009.08.10 연합뉴스

접견실 들어서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경한 법무부장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9월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자 후보군 선출을 위해 열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회의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가운데)과 김경한 법무부장관(오른쪽), 송상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자문위원들과 접견을 하기위해 접견실로 들어오고 있다. (김현태 기자)

2009.08.10 뉴시스
대법관 후보 4명 압축…수일내 1명 제청

대법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는 10일 권오곤·민일영·정갑주·이진성 후보 등 4명을 차기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각급 단체가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40여명의 후보 중 이들 4명을 선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수일내 이 가운데 한 명의 적격자를 골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권오곤 옛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56·사법연수원 9기) 등 3명을,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강병섭 변호사(60·연수원 2기) 등 3명을 추천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강 변호사 등 2명을 추천했으며, 법원노조도 김용균 행정법원장 등을 추천한 바 있다. (김종민 기자)

2009.08.10 머니투데이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으로 압축(상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수일 내 차기 대법관 후보 1명 제청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10일 자문위 회의를 열어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권오곤(56·사법연수원 9기)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과 정갑주(55·9기) 전주지법원장, 민일영(54·10기) 청주지법원장, 이진성(53·10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천했다.

자문위는 이날 각급 단체가 차기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40여명의 후보 중 이들 4명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수일 내 이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부소장 등 3명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병섭(60·사법연수원 2기)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류철호 기자)

2009.08.10 뉴시스
새 대법관 후보 4명 압축…수일내 1명 제청

대법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는 10일 권오곤 국제유고전범

재판소(ICTY) 부소장·민일영 청주지법원장·정갑주 전주지법원장·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을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각급 단체가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40여명의 후보 중 이들 4명을 선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권오곤 부소장(56·사법연수원 9기)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을 거쳐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민일영 법원장(54·연수원 10기)은 경기 여주 출신으로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회 사법시험에 합격, 해군법무관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이진성 차장(53·연수원 10기)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 미국 S.M.U. 법대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정갑주 법원장(55·연수원 9기)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 법조계에 입문했다.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법원장은 수일내 이 가운데 한 명의 적격자를 골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법원노조 등은 이들을 포함해 40여명의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김종민 기자)

2009.08.10 연합뉴스

대법관후보 권오곤・정갑주・이진성・민일영(종합)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권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군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권 부소장(56.청주)은 사법시험 19회(사법연수원 9기)로 2001년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상임재판관에 선출돼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주심을 맡았고 2008년부터는 2년 임기의 부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정 원장(55.전남)은 사시 19회(연수원 9기)로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전남 지역의 대법관이 없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연수원 10기인 이 차장(53.부산.사시19회)과 민 원장(54.경기.사시20회)은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 대법관 추천을 받았으며 사법연수원 7~10기를 중심으로 법원 안팎에서 30여명이 천거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가 압축한 4명 중 1명을 골라 수일내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제청자문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김영란 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회장,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등 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백나리 기자)

2009.08.10 머니투데이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으로 압축(종합)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수일 내 후보 1명 대통령에게 제청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10일 자문위회의를 열어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권오곤(56·사법연수원 9기)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과 정갑주(55·9기) 전주지법원장, 민일영(54·10기) 청주지법원장, 이진성(53·10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천했다.

자문위는 각급 단체가 차기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40여명의 재산관계와 납세, 병역문제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여 이들 4명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권 부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정 지원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 여주 출신인 민 지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해군법무관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이 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 미국 S.M.U. 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이 대법원장은 수일 내 이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부소장 등 3명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병섭(60·사법연수원 2기)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류철호 기자)

2009.08.10 연합뉴스
신임 대법관 후보에 4명 추천(종합2보)
권오곤・정갑주・이진성・민일영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권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군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재산관계, 납세, 병역 문제에 있어서도 치밀하고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권 부소장(56.청주)은 사법시험 19회(사법연수원 9기)로 2001년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상임재판관에 선출돼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주심을 맡았고 2008년부터는 2년 임기의 부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정 원장(55.전남)은 사시 19회(연수원 9기)로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전남 지역의 대법관이 없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연수원 10기인 이 차장(53.부산.사시19회)과 민 원장(54.경기.사시20회)은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 대법관 추천을 받았으며 사법연수원 7~10기를 중심으로 법원 안팎에서 30여명이 천거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가 압축한 4명 중 1명을 골라 수일내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제청자문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김영란 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회장,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등 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백나리 기자)

2009.08.10 한겨레
대법관 후보에 권오곤, 정갑주, 이진성, 민일영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10일 회의를 열어 새 대법관 후보로 권오곤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56·사법시험 19회), 정갑주(55·~19회) 전주지법원장, 이진성(53·~19회)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54·~20회) 청주지법원장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곧 이들 가운데 한 명을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번 정권 들어 새 대법관을 임명한 것은 지난해 8월 양창수 대법관, 올해 1월 신영철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다. (김남일 기자)

2009.08.10 <연합뉴스 이시각 헤드라인> - 20:00
■신임 대법관 후보에 4명 추천

서울 -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권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군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2009.8.10 세계일보
대법관 후보 권오곤씨 등 4명 선정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다음 달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사법연수원 9기의 권오곤(56)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과 정갑주(55) 전주지법원장, 연수원 10기의 이진성(53) 법원행정처 차장과 민일영(54) 청주지법원장 4명을 후보로 선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중에 한 명을 택해 이르면 12일쯤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2001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머물며 옛 유고 전쟁범죄자 재판을 맡고 있는 권 부소장은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법관 생활 대부분을 호남 지역에서 한 정 원장은 청빈함이 돋보인다. 이미 대법관을 배출한 10기보다 아직 배출하지 못한 9기에서 대법관이 나올 가능성이 커 권 부소장과 정 원장 중 한 명의 낙점을 점치는 분위기다. (김태훈 기자)

2009.8.10 서울경제
권오곤·정갑주 등 4명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에 권오곤(56·청주·연수원 9기)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정갑주(55·전남·9기) 전주지법원장, 이진성(53·부산·10기)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54·경기·10기) 청주지법원장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대법관 후보자 40여명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 권 부소장 등 4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부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법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01년 유고 상임재판관에 선출돼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에 대한 주심을 맡았으며 지난해부터 부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정 원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유일한 전남 출신 대법관이었던 김황식 전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일찌감치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민 법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 도서관장을 지냈다. 이 차장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두 사람 모두 정통 법관 출신으로 재판실무와 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이다.

이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1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김능현 기자)

2009/08/11 한국일보
대법관 후보 4명 압축
제청자문위, 권오곤·민일영·이진성·정갑주 추천

이용훈 대법원장(오른쪽)과 송상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회의실로 향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주성 기자 poem@hk.co.kr

다음 달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0일 차기 대법관 후보로 권오곤(56·사시 19회) 구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민일영(54·20회) 청주지법원장, 이진성(53·19회) 법원행정처 차장, 정갑주(55·19회) 전주지법원장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자문위는 각계에서 추천받은 현직 법관과 변호사 등 법조인 40여명 중 이들 4명을 후보로 선정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이 대통령은 제청된 인사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영창 기자)

2009.08.11 서울신문

대법관 4파전

권오곤·민일영·이진성·정갑주 후보로 압축

새달 중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기 위한 적격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 대법관 후임자 누가 될지… 이용훈(앞줄 가운데) 대법원장과 김경한(오른쪽) 법무부장관, 송상현 대법관제청자문위원장이 10일 다음달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자 선출을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대법원 접견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서울대 교수)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추천된 후보 30여명 가운데 권오곤(사법시험 19회) 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민일영(20회) 청주지방법원장, 이진성(19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19회) 등 4명을 신임 대법관 적격 후보자로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명단을 전달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최종 1명을 선정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오이석 기자)

2009.08.11 아시아경제

대법관 후보 4명 최종압축

김용담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4명으로 최종 압축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오는 9월11일로 임기를 마칠 김 대법관 후임으로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최종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2001년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상임재판관에 선출된 권 부소장(56・사시19회・연수원9기)은 지난해부터 2년 임기 부소장 직을 겸임하고 있다.

정 원장(55・사시19회・연수원9기)은 전남 출신으로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을 맡으면서 이 지역 대법관이 없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고, 이 차장(53・사시19회)과 민 원장(54・사시20회)은 재판 실무 뿐 아니라 사법 행정에도 밝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들 4명 가운데 1명을 정해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송 위원장 외에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김영란 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김효진 기자)

2009.08.11 법률신문
신임대법관 후보 권오곤 재판관 등 4명으로 압축
대법관제청자문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추천하는 데 중점뒀다”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권오곤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1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법관후보자로 추천된 30여명 가운데 권 재판관 등 4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이르면 1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이날 대법관 적격자 선정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재산관계, 납세, 병역 등에 대해 치밀하고 강도높게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낙마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부쩍 높아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이번 제청자문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둬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 권오곤 재판관= 충북 청주(55세). 경기고·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9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통령비서실 법제연구관, 대구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구(舊)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경기 여주(54세). 경복고·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0기, 서울민사지법, 대구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법원장.

△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부산(53세). 경기고·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0기, 부산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전남 강진(55세).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9기, 광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목포지원장, 대전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 (류인하 기자)

2009.08.12 세계일보
대법원, ‘국민 눈높이’ 人選검찰 타산지석 삼아 ‘유비무환’ 인사청문
대법관후보 선정 때 재산 많으면 배제해

다음달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준비하는 대법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벽을 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재산이 많아 논란이 예상되는 후보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이른바 ‘천성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능력과 자질에 큰 차이가 없다면 국

민 '눈높이'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11일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4명 중 외부인사인 권오곤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을 제외한 고위 법관 3명은 동기생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축에 속한다.

사법연수원 9기인 정갑주 전주지법원장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4억3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 원장이 1982년부터 27년간 법관 생활을 한 점에 비춰보면 재산이 이례적으로 적다.

9기의 다른 유력 후보 A씨와 B씨는 재산이 각각 40억, 30억원대라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연수원 10기 출신으로 후보 추천을 받은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은 각각 11억7700만원, 12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동기생 평균에 못 미친다. 10기에서는 길기봉 대전지법원장, 이재홍 수원지법원장, 조용호 춘천지법원장 등도 거론됐으나 2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제청자문위는 재산 등 도덕성 문제가 후보 선정의 핵심 기준이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특히 재산관계, 납세, 병역 등을 치밀하고도 강도 높게 검증했다"고 전했다.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후보 추천에 중점을 뒀다"는 말로 서민과 '거리감'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뒀음을 내비쳤다. (김태훈 기자)

2009.08.20 아시아경제

국제사법기구 이끄는 한국인은 누구?

권오곤·송상현·백진현, 국제사법기구서 활약

현낙희(29)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가 현직 여성 법관으로는 최초로 오는 21일부터 1년간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에 재판연구관 자격으로 파견됨에 따라 현재 국제사법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 누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만들어진 지 6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현재 많은 이들이 당당히 국제사법기구의 중심에 서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현낙희 판사가 파견된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현재 권오곤(56) 재판관이 부소장을 맡고 있다. 권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2년 임기의 부소장으로 선출됐으며, 앞서 지난 2001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재판관에 선임됐다. 권 재판관은 그 해 주심 재판관으로서 전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셰비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는 1991년 이후 옛 유고연방공화국에서 발생한 대량학살 감금 강간 등 이른바 인종청소 명목으로 자행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평화구축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임시적 성격의 국제형사재판소다.

이밖에 대량학살 등 반(反) 인륜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이끌고 있는 이도 역시 한국인이다. 송상현(68) 재판관은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총회에서 동료 재판관들의 호선으로 3년 임기의 소장직에 선출됐다. 송 재판관은 한국인 최초의 국제 사법기구 수장으로 뽑혀 국제사회에서 조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타계한 고(故)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의 빈자리를 이어 백진현(56) 서울대 교수가 국제해양법 재판관으로 선임돼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천한 사법 역사에서 한국인 재판관이 국제사법기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국제 협상이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국력을 발휘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2009.08.24 동아일보
새 대법관 후임 25일 제청

다음 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이 25일경 이뤄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2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하고 후임자 1명을 임명제청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25일 임명 제청이 이뤄지면 이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지 보름 만이다. 제청자문위는 앞서 10일 권오곤 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이상 사법시험 19회),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사시 20회)을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전성철 기자)

2009.08.25 머니투데이
민일영 청주지원장 대법관 후보 제청 (상보)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일영(54·사시 20회·연수원 10기·사진) 청주지방법원장을 내달 11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경기 여주 출신인 민 지원장은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민 지원장은 이후 대구고법 판사를 거쳐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민 지원장은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과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민 지원장은 법관 본연의 재판 업무에 정통하고 다양한 보직을 거쳐 행정업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는 또 서울대 법대에서 민사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민사소송법 중 민사집행법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서예 등 비법률적 분야에도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 원장은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정통하고 법원행정에 매우 밝은데다 따뜻하고 감성적인 성품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대법관 제청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방침이며 민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공식 임명된다.

한편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지난 10일 자문위회의를 열어 민 지원장과 권오곤(56·연수원 9기)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과 정갑주

(55·9기) 전주지법원장, 이진성(53·10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류철호 기자)

2009.08.25 법률신문
신임 대법관에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54·사법연수원 10기) 청주지법원장을 내달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이 각계각층의 의견과 제청자문위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력, 전문적인 법률지식,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해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으로 제청된 민 법원장은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쳐 법원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의 권위자로서 해박한 법이론을 갖추고 있으며, 민사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따뜻하고 감성적인 인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선·후배 법조인들의 신망이 두텁다.

이번 대법관제청에 대해 일선 법관들은 대체로 민 원장의 인품과 학식에 비춰 무난한 인선이었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온화한 성품과 달리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매서운 판단력을 지니신 분"이라며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로 연구활동에도 왕성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법률용어순화에도 애쓰는 등 대법관으로 적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사법연수원 9기를 건너뛰고 10기 출신이 대법관에 제청되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지난 10일 대법관후보로 추천된 30여명 가운데 권오곤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등 4명을 대법관 제청후보로 이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었다. (류인하 기자)

2009.08.31 연합뉴스
<인터뷰> 권오곤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국제 형사재판에 한국 위상 높여 보람"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거물급 전범(戰犯) 사건의 재판장을 맡게된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은 31일 "국제사회를 대표해 중요 재판의 재판장이 되었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부소장이 재판장으로 나서는 사건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잔혹한 '인종청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의 재판.

13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지난해 7월 전격 체포된 카라지치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는 전범 용의자 중 최대 거물로 손꼽혀왔다.

권 부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카라지치는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보다 대량학살에

있어 더욱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어 이번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며 "ICTY가 창설된 후 16년간 새 증거가 많이 발견됐고, 판례도 많이 누적돼 매우 의미있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라지치 재판은 피고인이 1급 전범 피의자이기도 하지만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던 중 사망해 판결 선고를 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권 부소장은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재판관으로 참여했지만 피고인이 5년간 재판을 끌다 2006년 3월 옥중에서 숨지는 바람에 사건이 종결되지는 못했다.

권 부소장은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은 자신의 유무죄 판단에는 관심이 없이 재판 절차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카라지치는 세계의 유수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법률논쟁에 참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고 했다.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 5만여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하겠다며 재판을 자꾸 늦췄던 것을 타산지석 삼아 이번에는 `적절한 재판 진행'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권 부소장의 계획이다.

그는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면서도 재판과 무관한 정치 발언을 제지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밀로셰비치 사건은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 원수의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는데 사건을 마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소회도 밝혔다.

5년간 검찰이 소환한 증인이 300여명에 달했던 밀로셰비치 재판과 마찬가지로 카라지치 사건도 검찰측 증인만 540여명에 달하고 재판 기간이 최소 3년은 걸릴 대형 사건이다.

카라지치는 미국측 발칸반도 특사로부터 정치적 거래로 면책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ICTY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법정에 세운 상태다.

권 부소장은 "9월에는 주심 재판관으로 준비절차를 진행하면서 사건 규모 및 증인 숫자를 조정하고 10월7일께 첫 재판을 시작하려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권 부소장이 2001년 ICTY 재판관으로 선출된 이래 8년간 활동해온 덕분에 국제 사법계에서 한국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처음에는 언어와 재판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권 부소장은 점차 재판관들의 합의 과정에서 판례 형성을 주도했고, 국내의 법관들이 ICTY의 연구관으로 파견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뽑힌 송상현 전 서울법대 교수가 올해부터 ICC 소장직을 맡으면서 한국인이 나란히 국제 형사법원의 요직을 채우게 된 것은 한국 법조계의 쾌거로 평가된다.

권 부소장은 "침 우리 사법제도가 대륙법과 영미법을 절충한 것이라 국제 형사재판과 통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국제형사재판에 기여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을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나리 기자)

2009.9.1 중앙일보

한국인이 '인종 청소' 전범 단죄

권오곤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카라지치 재판장 맡아

권오곤(56·사진)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이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의 전범 라도반 카라지치(64)에 대한 재판 재판장이 된다. 임명은 1일(현지 시간). 한국 출신 법조인이 세계적 관심이 쏠린 '거물' 전범의 재판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ICTY 사무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근무 중인 권 재판관은 31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재판이어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권 재판관은 2001년 한국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ICTY재판관이 됐다. 79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해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였다. 올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된 송상현(68) 전 서울대 법대 교수와 함께 국제 사회에서 한국 법조계를 대표하고 있다. 최근엔 한국의 대법관 후보자 4명 중 한 명으로 추천됐다. 양창수 대법관과 동서 지간이기도 하다.

권 재판관은 "국제형사 재판에 기여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ICTY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국제형사재판소이기 때문에 재판관은 유엔 사무차장급의 대우를 받는다. ICTY에는 세계 각국의 대법관급 판사인 16명의 상임 재판관과 12명의 임시 재판관이 있다. 권 재판관은 상임 재판관으로 ICTY의 부소장을 겸하고 있다.

권 재판관은 2006년 옥중에서 숨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당시 테러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해 두 달간 경호를 받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경호를 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재판은 영어로 진행된다. 권 재판관은 "22년간 한국에서 판사로 일할 때만 해도 영어로 재판을 할 줄은 몰랐다"며 "한국어보다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후배들이 어학 능력과 자신만의 확고한 전문 분야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카라지치는 92~95년 보스니아 등의 30개 지역에서 집단 학살·인종 청소 등 11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ICTY의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3년간 도피 끝에 지난해 7월 체포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재판부는 권 재판장과 크리스토프 플뤼게 재판관(독일)과 미셸 피카르 재판관(프랑스)으로 구성되며 유고시를 대비해 한 명의 예비 재판관도 재판에 참여한다.

권 재판관은 "10월 초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일주일에 3~5회 재판을 하며, 카라지치는 대부분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달리 유럽과 미국 등 국제 사회에서는 이번 재판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가 진행하는 재판은 ICTY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된다.

카라지치는 "전쟁 중에 벌어진 사고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권 재판관은 "500명이 넘게 신청된 증인과 각종 자료를 선별해서 2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선고문은 재판장인 권 재판관이 읽게 된다. (김승현 기자)

2009.09.25 법률신문

[인터뷰] IAKL 17차총회 준비에 바쁜 조대연 변호사

"세계한인변호사회는 한민족의 저력"

"세계한인변호사회(IAKL)는 한국계라는 공통된 유산과 핏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이제 IAKL은 공익사업을 본격적으

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와 세계법률문화에 기여하는 등 한민족의 저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내달 22일부터 25일까지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열리는 제17차 IAKL 연차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준비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조대연(김앤장 법률사무소·사진) IAKL 회장을 만나 IAKL의 역할과 나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IAKL은 국내에서는 물론 전세계 한인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파트와 해외파트의 이원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파트는 2007년10월 외교통상부를 주무관청으로 한 공익법인 형태를 갖췄습니다. IAKL은 앞으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신장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통해 전세계 한인변호사들은 물론 해외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공익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한 IAKL은 올해 들어 김경희·유영일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익위원회를 발족해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및 해외입양인 관련 법률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전기를 마련했다.

올해 총회의 대주제는 ‘미래를 향한 법률가의 역할’로 세계각국의 법조실무와 법률문화 발전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리더들을 소개 발굴하고, 다양한 각국의 법제와 범세계적인 법적·사회적·경제적 현안 등 13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조 회장은 밝혔다.

“특히 올해 한국에서는 로스쿨교육이 시작됐고 조만간 법률시장개방도 현실화 될 것입니다.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법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차세대 법조리더를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청년 법조인들을 위한 별도의 논의의 기회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 회장은 국내 로펌들이 공익활동 차원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에서 국제변호사협회(IBA) 회장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변호사협회장, 거물급 법조인사들을 초청할 계획도 계속 추진함에 따라 IAKL에서도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초청해 기조강연과 페르난도 펠라즈 피에르 IBA 회장 등의 연설도 기획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IAKL 행사가 통역없이 진행되어 온 관계로 국내 변호사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지적을 해소키 위해 대한변협에서는 예년과 달리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나아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해외변호사들이 국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률연수교육 강사로 나서는 것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윤상원 기자)

2009.09.30, 연합뉴스 (매일경제)
서울대 법대에 '송상현기념홀' 생긴다

서울대 법대는 동 대학 출신인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한국인 최초로 국제사법기구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을 기념해 15동 법학강의동 6층 모의법정을 ‘송상현기념홀’로 명명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ICC는 집단살해죄와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반(反)인류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소장은 1972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돼 2007년 정년퇴임

했으며 2003년부터 ICC 재판관으로 활동하다 올해 3월 ICC 소장으로 선임됐다.
법대는 내달 22일 명명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황철환 기자)

2009.09.30 한국경제
서울대 법대에 '송상현기념홀'이 생긴다.

서울대 법대는 동 대학 출신인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사진)이 한국인 최초로 국제사법기구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을 기념해 15동 법학강의동 6층 모의법정을 '송상현기념홀'로 명명키로 했다.
ICC는 반(反)인류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2009.09.30 한국일보
서울대 법대 '송상현기념홀' 마련

서울대 법대는 이 대학 출신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한국인 최초로 국제사법기구 수장에 오른 것을 기념해 교내 법학강의동 모의법정을 '송상현기념홀'로 명명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소장은 1972~2002년 서울대 교수로 재임했고 3월 ICC 소장에 선임됐다.

2009.10.20 국민일보
"북녘 동포에 자유와 생명을" 교회·기독NGO, 구국 기도회·세미나 등 잇따라

북녘 동포들을 위한 기도회와 시위가 국내외 기독교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북한 인권 관련 기독NGO 글로벌정의기도네트워크(대표 박진훈 선교사)는 다음달 7~8일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한 대규모 연합 집회를 갖는다.
예수전도단 월요중보모임, 지구촌교회와 할렐루야교회 북한선교위원회, 자유와생명운동,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단체연합회, 탈북자동지회 등 북한 인권 단체와 목회자, 성도들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선 10여 차례 기도회가 이어진다. 집회에서는 중국과 미국, 한국 정부와 교회 지도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가 낭송된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 기간 금식 기도한다. 또 탈북자 10여명은 북한 집단수용소 인권 탄압의 실상을 증언하고 중국의 탈북자 북송 중지를 촉구한다.
서울 영락교회와 새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성도 100여명은 다음달 9일 임진각 일대에서 북한 선교단체와 함께 남북한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구국 기도회를 갖는다. 이들은 매달 둘째 주 월요일 임진각에서 구국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고신대 기독교교육연구소(소장 임창호 목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부산 사직동교회 비전홀에서 '자유 북한과 기독교 교육'이란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가 '갑작스런 북한 자유를 대비하여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하며, 강용원(고신대) 이금만(한신대) 옥철호(고신대) 교수와 신기영 지구촌고등학교장, 오정호(대전 새로남교회) 목사는 패널로 나선다. 이어 전 북한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의

통일을 전망한다.

해외 한인 성도들도 북한 인권을 위해 나선다. 기독 탈북자 미주 모임인 고향선교회는 유엔의 날인 오는 24일 정오 '주여! 북한을 구원하소서'라는 주제로 미국 시애틀 다운타운 스페이스니들 탑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

한편 글로벌정의기도네트워크는 매주 금요일 오후 서울역 광장 등에서 북한 인권 탄압의 실상을 알리는 사진전을 열고 있다.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과 김정일 ICC 제소를 위한 피켓 시위도 병행하고 있다. 중보기도 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저녁 서울 평동 바위샘교회에서 북한 동포의 인권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다.

탈북자종합회관 김우진 목사는 "20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기도와 시위운동이 독일 통일의 단초가 됐다"며 "한국교회가 북한 땅에 자유와 정의를 되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2009.10.22 이코노믹 리뷰

제 17회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개최...송상현 ICC재판소장, 김유니스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등 참석

(온라인)전 세계 한인 변호사 한자리에

전세계 한인변호사들이 서울에 모인다.

세계한인변호사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 제 17차 세계한인변호사회총회 및 학술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IAKL은 창립 이래 지난 20여 년 간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국제화 시대 법률문화를 선도한 공익단체다.

금년 총회의 주제는"미래를 향한 법률가의 역할(Looking into the Future: Role of Legal Profession)"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법조실무와 법률문화 발전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리더들을 소개하고 발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국의 법제와 범세계적인 법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24일에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장에 오른 송상현ICC재판소장의 특별강연이 마련돼 있다.

한편, IAKL는 외교통상부에서 인정받은 공익법인이며 IAKL의 학술대회는 법조인력 양성 및 교육, 재교육을 통해 대한변협의 인정연수는 물론 세계 각국의 법제에 따라 지속적인 법조연수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 (오희나 기자)

2009.10.22 법률신문

[인터뷰] 세계한인변호사회 사무총장 최정환 변호사

"한국변호사들 국제교류에 너무 무관심"

“아직도 국내의 많은 변호사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국제교류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더구나 국수주의 성향의 일부 변호사들은 한국인이 왜 한국말을 못하느냐고 외국에서 온 한인변호사를 질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있습니다.”

6년째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정환(48·사법연수원 18기·사진)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해 앞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외국의 새로운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진출에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변호사들이므로 국내 변호사들이 이들과의 교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IAKL이 아직은 상설적인 기구나 사무국을 마련하고 있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매년 준비위원들이 엄청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 대회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IAKL도 반드시 상설기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영일·최병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IAKL 준비위원회는 22~25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리는 제17차 총회 및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가동해왔다. 준비위의 노력으로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등이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IAKL의 위상이 크게 격상되고 전 세계에서 150여명의 한인변호사들이 서울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인 변호사들이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는 50명 이상의 한인출신 변호사가 있으며, 중국에도 현재 100명 이상의 조선족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도 상당수의 고려인 출신 변호사가 있으며, 독일에도 광부와 간호사 후손 50명 이상이 독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세기 이민이 활발했던 미국·캐나다·브라질·아르헨티나·파나마·호주·뉴질랜드 등에도 한인출신 변호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 등에도 입양아를 비롯한 한인출신 변호사가 속속 탄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다 영국·스페인·프랑스 등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인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서 매년 한번씩 모이는 것을 도와주고 봉사한다는 것은 큰 기쁨 중의 하나”라고 IAKL의 활동에 대해 또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IAKL을 적극 이용해야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자로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됐다. 비록 단계적 개방이라는 보호막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지만 5년 후에는 외국 로펌들도 국내에 들어온다. 하지만 국내 법조인들이 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 5년이라는 기간동안 우리 변호사들의 해외로펌 근무, 해외사건의 대리 등 해외진출을 위해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이젠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국내 로펌에만 취직할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나가서 더 공부하고 외국 로펌에서 업무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AKL이라는 조직이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원 기자)

2009.10.22 연합뉴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국제형사재판소장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국제형사재판소장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은 제5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송상현(68)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기사 참조> 2009.10.22 pcs@yna.co.kr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은 제5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송상현(68)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소장은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초대 재판관을 지내고 올해 3월부터는 제2대 소장으로 선출돼 전쟁과 집단학살, 침략행위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국제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다고 재단은 밝혔다.

또 재단은 송 소장이 하버드대 법대를 비롯해 미국 내 여러 대학과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에 한국법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한국법과 한국 법률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영산대 설립자인 고 박용숙 여사가 2002년 사재 30억 원을 들여 설립했으며, 재단은 2004년부터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한 법률가와 법학자를 발굴해 5천만 원의 상금을 주는 등 포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23일 오후 6시30분 서울 롯데호텔 월드 3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다.

2009.10.22 매일경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제5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은 제5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송상현

(68)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소장은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초대 재판관을 지내고 올해 3월부터는 제2대 소장으로 선출돼 전쟁과 집단학살, 침략행위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국제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다고 재단은 밝혔다.

또 재단은 송 소장이 하버드대 법대를 비롯해 미국 내 여러 대학과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에 한국법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한국법과 한국 법률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영산대 설립자인 고 박용숙 여사가 2002년 사재 30억 원을 들여 설립했으며, 재단은 2004년부터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한 법률가와 법학자를 발굴해 5000만 원의 상금을 주는 등 포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23일 오후 6시30분 서울 롯데호텔 월드 3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다. (부산=박동민 기자)

2009.10.22 문화일보

<사이버대학을 찾아서>
“美·中·유럽 등 5개 지역에 세계지역센터 설립 추진”

“한양사이버대는 2020년에는 재학생수가 2만명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원격대학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홍구 한양사이버대 학장은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거쳐 평생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2010년부터 대학원, 산학협력단 등의 설립이 가능해져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학장은 “중장기발전전략이 완성되는 2020년에 교수 1인당 논문수가 현재의 0.52편에서 2편, 재학생수는 1만2000명에서 약 2배인 2만명, 외국어콘텐츠 비율은 1%에서 10%로, 연구수주는 23건에서 440건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양사이버대는 8개 단과대학 24개 학과를 둔 종합대학으로서 미국 유럽 중국 등 5개 지역에 세계지역센터를 설립하며, 30개의 해외 유명대학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여 학장은 “강의프로그램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개발되기에 한양사이버대 콘텐츠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원격대학 우수 콘텐츠에 사이버대 중 가장 많은 9개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한양사이버대는 한국표준협회가 선정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2006~2009년 4년 연속 사이버대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009년 한양사이버대가 획득한 서비스품질지수는 66.3점으로 국내 전 온·오프라인 대학 중 최고 점수였다.

한양사이버대는 올 초 테솔(TESOL)분야 최고 교육기관인 미국 애너하임대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6월부터 ‘테솔 자격증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키로 협약을 맺었다. 국내 사이버대 중 처음으로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테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 학장은 “한양사이버대 명사특강의 경우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교수로 초빙해 그들의 해박한 지식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강의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한 과목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양사이버대는 200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원격대학 평가 최우수대학 및 2008 한국대학신문 교육콘텐츠 부문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여 학장은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 대외협력부총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 정책자문단장,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정충신 기자)

2009.10.22 국민일보 쿠키뉴스
국제형사재판 송상현소장,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은 제5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송상현(68)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소장은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초대 재판관을 지내고 올해 3월부터는 제2대 소장으로 선출돼 전쟁과 집단학살, 침략행위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국제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송 소장은 하버드대 법대를 비롯해 미국 내 여러 대학과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에 한국법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한국법과 한국 법률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와 함께 송 소장은 지난 20여년간 국내에서는 대법원 송무제도 개선위원으로서 각종 기본법 및 민·형사소송법 등에 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꾸준하게 개진해 오고 있다. 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사법시험관리위원 및 검찰인사위원으로서도 '형사재판, 영장제도, 검찰제도운영, 인권옹호' 등에 관해 계속 조언해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무역마찰과 관련한 각종 정부 및 민간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국제거래법학회,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등을 창립해 새로운 법률분야에서의 이론정립과 국익옹호에 앞장서 왔다.

송 소장은 "이번 수상자 결정은 한국법학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다"며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세계 형사 정의구현 체제를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체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국제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영산대(총장 부구욱) 설립자인 고 박용숙 여사가 2002년 12월 사재 30억원을 들여 설립했으며, 재단은 2004년부터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한 법률가와 법학자를 발굴해 5000만원의 상금을 주는 등 포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23일 오후 6시30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월드 3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2009.10.22 뉴시스
세계한인변호사회 학술대회 22~25일 서울서 개최

제17차 세계한인변호사회(International Association Korea Lawyer, IAKL) 총회 및 학술대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미래를 향한 법률가의 역할(Looking into the Future: Role of Legal

Profession)이라는 주제로 미국 특허판례의 최근 경향과 미국과 한국의 반독점법, 법조계의 여성파워, 각국의 노동법 변화 등 세계 각국의 법제와 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 국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연 점을 감안해 차세대 법조인 양성 방안도 논의되며, 24일에는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재판소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IAKL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매년 국내외를 번갈아 가며 총회를 개최해 왔다. (서울=지연진 기자)

2009.10.22 연합뉴스
세계한인변호사회 22~25일 성균관대서 총회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17차 총회 및 학술대회가 22~25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다.

'미래를 향한 법률가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특허법의 새로운 경향과 지적재산권의 변화, 국제 중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또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24일에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이 연사로 나와 특별 강연도 한다.

IAKL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매년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가며 총회가 열린다. (서울=이한승 기자)

2009.10.22 파이낸셜뉴스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22일부터 성균관대서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제17차 총회 및 학술대회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다.

22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미래를 향한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세계 각국의 법조실무와 법률문화 발전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리더들을 소개, 발굴한다.

또 각국 법제와 범세계적인 법.사회문화.경제 현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도 이어진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내외 법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차세대 법조리더 육성을 위한 방안도 목색한다.

대한변협은 "24일은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재판소장의 특별강연이 마련돼 있다"면서 "세계 한인 변호사들은 물론 해외 동포들을 하나로 묶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AKL는 창립 이후 20여년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현재 국내와 국외 파트로 운영 중이다. (정지우 기자)

2009.10.23. 세계일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은 제5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송상현(68·사진)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소장은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초대 재판관을 지낸 데 이어 지난 3월 제2대 소장으로 재선출돼 전쟁과 집단학살, 침략행위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국제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다고 재단은 밝혔다.

재단은 또 "송 소장이 하버드대 법대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대학과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에 한국법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한국법과 한국 법률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영산대 설립자인 고 박용숙 여사가 2002년 사재 30억원을 들여 설립했으며, 재단은 2004년부터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한 법률가와 법학자를 발굴해 5000만원의 상금을 주는 등 포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23일 오후 6시30분 서울 롯데호텔월드 3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다.

송 소장은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아 영광이며, 한국법학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하여 일로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세계 형사 정의구현 체제를 발전시키는 등 국제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헌신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2009.10.23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장 강연

검찰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2009.10.23 연합뉴스
강연하는 국제형사재판소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대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2009.10.23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장, 대검찰청서 강연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강연하기 위해 김준규 검찰총장과 함께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2009.10.23. 세계일보
“젊은 검사들, 국제적 안목 키워야”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대검서 특강
“국제 법조계, 일할 기회 많아 준비 필요”
“‘법의 지배’ 원칙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도 엄격히 적용돼야 합니다.”

송상현(68·사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23일 대검찰청에서 특강을 갖고 검사들에게 ‘국제적 안목’을 주문했다. 이번 강연은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이자 대표적 ‘국제통’인 김준규 검찰총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송 소장에 따르면 ICC는 특정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그는 “판사가 경제, 정치 등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ICC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가 다루는 범죄는 침략전쟁, 집단학살 등으로 국내 법원과 크게 다르다. 하지만 형법의 기본 원칙은 ICC의 국제형사재판과 국내 법원의 형사재판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송 소장은 주장한다.

송 소장은 특히 젊은 검사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국제사회엔 한국인이 일할 기회가 많습니다. 법률 분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려면 다양한 사법전통에 대한 지식과 언어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평소 국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넓은 안목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ICC는 비인도적 전쟁을 일으키거나 대량학살을 저지른 범죄자 처벌을 위해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다. 송 소장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인 2003년 ICC 재판관에 임명됐으며, 올해 3월 재판관 18명의 투표를 거쳐 2대 재판소장에 뽑혔다.

송 소장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한국 법률가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이 주는 영산법률문화상의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24일 성균관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17차 총회에도 참석해 특강을 갖는다. (글 김태훈, 사진 송원영 기자)

2009.10.24. 연합뉴스
"사법정의 없이는 영구적 평화 없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24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17차 총회 특강에서 "ICC 활동으로 사법 정의 없이 영구적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비전이 서서히 전 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냈으며 올해 3월 제2대 소장으로 선출돼 한국인 최초로 국제사법기구 수장 자리에 올랐다. << 사회부 기사 참조, IAKL측 제공 >> yjkim84@yna.co.kr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특강

"사법 정의 없이는 영구적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비전이 서서히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상현(68)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24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17차 총회 특강에서 "ICC 활동으로 전쟁의 폐허 상에서 평화가 구축돼 가고 변화가 생겨나고 있어 용기를 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소장은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을 지냈으며 올해 3월 제2대 소장으로 선출돼 한국인 최초로 국제사법기구 수장 자리에 올랐다.

송 소장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잔악한 범죄는 국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해가고 있으며 `작은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정치인과 외교관들이 중대 범죄로 기소된 다른 정치인, 외교관을 피하기 시작했고 각국 대통령과 반군 지도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희생자들은 법의 심판이 존재하므로 폭력에 의한 보복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단죄받을 거란 희망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정에서 불편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과거에 폭력 행위에 가담했던 이들이 `내가 왜 싸워야 했나' 하고 이유를 반문하게 됐고 이로 인해 전쟁 참여 명분이 약해진 것도 성과로 꼽았다.

송 소장은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전범, 반인류범죄, 대량학살에 대해 기소할 역량과 의지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회원국이 110여개국에 이르지만 내 열망은 모든 국가들이 '로마 규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바람을 밝혔다.

또 "모든 국가들이 '로마 규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잔악 행위 범죄가 ICC재판에 회부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로마 규정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에서 우선적으로 수사, 기소할 책임이 생기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소장은 강연 직후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 '로마 규정'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국을 회원국으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희도 큰 과제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바마가 취임한 뒤 미국 행정부의 일반적인 태도가 변한 건 맞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당면 과제가 너무 많아 ICC 가입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미 상원을 설득해 충분한 숫자의 상원의원이 우리와 견해를 같이 하도록 만들려고 애쓰겠지만, 그렇게 하는 데 앞으로 수년은 걸릴 것이라 본다"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2009.10.25. 파이낸셜뉴스
세계한인변호사회 사무총장 최정환 변호사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의 연례모임인 제17차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총회가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급변하는 국제 법률시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에서 몰려든 한인 법률가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치러졌다.

지난 2003년부터 6년째 IAKL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두우' 최정환 대표변호사(48)는 "아직까지 국내 많은 변호사가 국제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 한인변호사들과 교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변호사 시장은 포화 상태여서 해외 시장을 찾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생존 전략"이라며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첨병이 바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변호사들간 교류 촉진을 위해 IAKL이 상설 기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번 총회 개막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등이 참여했으며 전 세계에서 150여명의 한인 변호사들이 방한하는 등 IAKL의 위상이 한

층 격상됐다.

최 변호사는 “현재 중국에 100명이 넘는 조선족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에도 상당수의 고려인 출신 변호사가 있다”며 “이 밖에 해외 이민과 취업 등이 많았던 독일, 미국,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 세계 각지에 한인 변호사들이 퍼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해외에 한인 변호사가 많은 것은 강제징용이나 입양 등 가슴 아픈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며 “이들 한인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매년 한 번씩 국내에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IAKL의 큰 임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또 “IAKL 총회가 국내 변호사들이 한인 변호사들을 통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데 일조하는 것도 주어진 숙제”라고 덧붙였다. (최갑천 기자)

2009.10.26. 법률신문
"한국법조인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 돼야"
송상현 ICC소장 대검서 특별강연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해 기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한국 법조인들의 진출이 많지 않아 크게 아쉽습니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23일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아카데미’에서 “한국 법조인의 국제기구진출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소장은 김준규 검찰총장과 차동민 차장검사 등 대검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아카데미에서 ‘일류사회의 꿈과 국제형사재판소’를 주제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목적과 기능, 미래상 등에 대해 강연했다.

송 소장은 강연에서 “국제사회는 한국 법조인들이 자국내에서 최고의 사회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수사기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 법조인들의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송 소장은 또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받고, 10명을 죽이면 정신병원으로 가고, 1만명을 죽이면 영웅대접을 받는다”고 운을 뗀 뒤 “이처럼 국가 내에서 영웅취급을 받는 독재자를 자국법정에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사법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가 국제평화를 위한 최후의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소장은 이어 “국제형사재판소가 주권국가의 문제에 항상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자국의 소추기관이 수사기능과 의지가 없을 때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송 소장은 반기문 UN 사무총장과의 인연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송 소장은 “군부와 언론을 장악하는 등 악명을 얻고 있는 어느 국가 독재자가 UN에서 반 총장과 의도적으로 마주치려 한 일이 있었다”며 “그가 반 총장과 접촉하고 있다는 의도적인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반 총장측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지난 2003년2월 33차에 걸친 재판관선거를 통해 같은해 3월11일 국제형사재판소장에 선출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인종의 집단학살 같은 국제범죄를 범한 독재자 등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지난 2002년7월1일 설립된 국제기구다. (박경철 기자)

2009.10.26. 법률신문

"차세대 법조인 육성 길라잡이로"

제17차 세계한인변호사대회, 美·유럽·아시아 등 16國서 100여명 참석

세계한인변호사회(IAKL)가 로스쿨제도 도입과 법률시장개방 등 국내외 법조환경 변화에 맞춰 글로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차세대 법조리더를 육성하는 데 두팔을 걷고 나서기로 했다. (▼ 하단관련기사·법률신문 2009년10월26일자 3면)

제17차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총회 및 컨퍼런스가 23~25일 서울 성균관대 600주년기념회관에서 미국·유럽·남미·아시아 등 16개국에서 온 한인변호사 100여명과 국내변호사 15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IAKL은 이번 대회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전 세계 한인변호사의 화합과 연대를 통해 차세대 법조리더를 육성하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대연 회장은 23일 총회 인사말을 통해 “IAKL은 창립이래 20여년간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변호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국제화시대 법률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세계의 문호가 개방된 글로벌화 시대에서 맞춰 전 세계의 한인변호사들의 화합과 연대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법조환경에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감당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AKL이 앞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신장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통해 전 세계 한인변호사들은 물론 해외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데 일조를 할 것”이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그러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AKL은 한인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지역 및 공익단체와 협력해 한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연차 총회개최지를 중심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하는 등 한인사회를 하나로 묶는 데 적지않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IAKL의 국내파트는 그동안의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10월 외교통상부를 주무관

청으로 한 공익법인의 형태를 갖추면서 본격적인 공익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 회장은 "금년 들어 김경희·유영일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익위원회를 발족해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및 해외입양인 관련 법률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계 고위인사들도 직접 참석해 법률시장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률시장개방은 우리나라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오히려 우리 법원과 우리 법조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IAKL의 회원들이 외국의 다양한 법률문화를 배워 우리 법조의 소중한 자산으로 축적하고 우리의 법률연구성과와 판례 등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활약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헌재소장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변호사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각국의 법률정보교환은 물론, 전 세계 한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IAKL이 이제는 변호사의 급증, 법률시장개방, 로스쿨제도 시행 등 급변하는 국내외 법조환경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고 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한인변호사들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시장개방과 로스쿨제도 도입 등으로 급변하는 법조환경으로 인해 10년 이내 국내 변호사 수는 2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외국과의 교류를 증대하는 등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변호사들과 협력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총회에 이어 IAKL은 23일과 24일 양일간 '미래를 향한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16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변호사와 국내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총회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법률이슈에 대한 문제들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허법원의 새로운 경향 △회사법의 새로운 진전 △한국기업과 변호사들이 알아야 할 국제중재 △투자자·지적재산권보호·국제조세 관련 중국법의 오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법조계의 여성파워 △한국·중국·독일·일본·미국 등 각국 노동법의 변화 △국제적 인권보호 △저작권·도메인·인터넷관련 지적재산권의 변화 △국제거래와 세법 △독일·프랑스·남미·중동의 법제발전동향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사내변호사의 역할 △해외진출 및 신영역 개척하는 청년법조인의 세계화 등 14개 소주제의 주제발표와 직문직답 등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24일 컨퍼런스에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의 특별강연도 이어져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조 회장은 "특히 올해 한국에서는 로스쿨교육이 시작됐고 조만간 법률시장개방도 현실화될 것"이라며 "국내 로펌은 물론 개별변호사들을 포함해 국외진출을 모색할 경우 IAKL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상원 기자)

2009.10.26. 법률신문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송상현(68)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이 한국법과 한국 법률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

로 제5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로 선정된 송 소장에게 상패와 상금 5,000만원을 수여했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은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거쳐 올해 3월 소장이 된 송 소장은 전쟁·집단학살침략행위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국제범죄를 단죄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했을뿐만 아니라 하버드대 법대 등에 한국법강좌를 개설해 한국법과 한국 법률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했다"며 수상자 선정배경을 밝혔다. (권용태 기자)

2009.10.27. 매일경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특권의식 버려라 질타

젊은 법조인들 국제 감각 길러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저 빼고 한국인은 단 두 명입니다. 한 명은 검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개척해서 들어온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거죠. 자꾸 이러면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계속 우물 안 개구리로 살게 됩니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68)은 지난 24일 성균관대에서 ‘평화를 향한 길은 정의의 반석 위에 있어야 한다’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후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루 앞서 열린 대검찰청 특강에서도 그는 같은 논지를 폈다. 한국인들의 국제기구 진출, 특히 법조인들의 국제기구 진출 노력이 취약하다는 데 커다란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 소장은 한국의 젊은 법조인들이 가진 ‘특권의식’을 꼬집었다.

그는 “젊은이들이 외국어에 겁을 먹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 역시 자신의 경쟁력을 위해 각자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기득권을 버리고 ‘인턴직’부터 경력을 쌓아가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법조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졸업하면 어디서든 고위직으로 대접받기를 기대하는 풍토가 이 같은 의식구조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송 소장은 “도전정신도 없이 환상에 빠져 있다가 변호사 시장 어렵다고 한탄만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최근 ICC의 고위직 채용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송 소장에 따르면 최근 ICC에 행정 총괄직 자리 하나가 비었는데 각국에서 여러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나라가 ICC 설립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 데다 소장이 한국인인 덕에 ICC에서 한국 위상도 상당히 높아 지원하면 채용될 수 있는 데도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오죽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비법조인에게도 열려 있는 자리니까 네덜란드에 나와 있는 삼성 직원을 영입할 수 없겠느냐'고 물어온다"며 "이미 우리 기업인들은 세계로 뻗어 나가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젊은 법조인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특히 그는 "우리처럼 수사기관에 최고 엘리트가 있는 나라가 흔치 않아 한국 검찰의 수사 기법을 세계에서 배우고 싶어할 정도인데 정작 젊은 검사들은 국제기구 진출에 몸을 사린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법조인의 국제 진출이란 맥락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최근 로스쿨이 응시자 감소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법조인 배출의 산실로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그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경험을 한 이들이 법조계에 진출함으로써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친 붕어빵 법조인'이 되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He is…

송상현 소장은 한국인 최초의 국제사법기구 수장이다. 올해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 선출됐다. 1963년 사법시험(16회)에 합격한 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3년부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해왔다. (고승연 기자)

2009.10.28. 법률신문

김현 서울변회장 코넬대평의회 참석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미국 코넬대학교 평의회에 참석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코넬대학교 평의원에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 회장 외에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평의원을 맡고 있다. 평의회는 코넬대 동문을 대표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최고자문기구다. (권용태 기자)

2009.10.30 뉴스천지

북한인권 보호 개신교NGO 대규모 집회

북한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신교NGO 글로벌정의기도네트워크(대표 박진훈 선교사)가 다음달 7~8일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동포 해방을 위한 대규모 연합 기도집회를 갖는다.

집회는 한·중·미 정부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송상현(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비롯해 목회자들을 향한 공개편지가 낭송된다.

주최 측은 탈북자 10여 명이 '북한 집단수용소에서 저질러지는 인권유린의 실태를 고하

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금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북한인권단체와 목회자, 성도 외에 예수전도단 월요중보모임, 지구촌교회와 할렐루야교회 북한선교위원회, 자유와생명운동,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단체연합회, 탈북자동지회 등의 단체가 참여한다.

한편, 글로벌정의기도네트워크는 서울역 광장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북한인권 탄압의 실상을 알리는 사진전을 열고 있으며, 북한인권법을 재정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북한동포 인권탄압행위를 ICC에 소송하기 위한 피켓 시위도 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금식기도를 진행한다. (백은영 기자)

2009.11. Legal Times 21권

송상현 소장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한국법 국제적 국제적 발전에 독보적 공적"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우)이 제5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선정 됐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은 "송상현 소장이 2003년 2월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재판관으로 당선된 이래, 올 3월 제2대 소장으로 선출되어 전쟁, 집단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함으로써 세계정의와 평화구현의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 한국법률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세계속의 한국법을 발전시키고자 하버드대 법대를 비롯하여, 미국 내 여러 대학과 호주, 뉴질랜드 등 일류 대학에 한국법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법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독보적인 공적을 세웠다는 점을 높이 사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10월23일 오후 서울 잠실의 롯데호텔월드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상금은 5000만원.

송 소장은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아 과분한 영광"이라며 "한국법학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하여 일로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